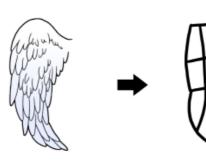
상형문자 ①

3(2)331



날개 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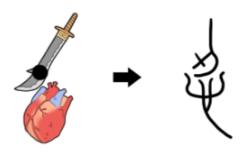
翼자는 '날개'나 '지느러미'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翼자는 羽(깃 우)자와 異(다를 이)자가 결 합한 모습이다. 異자는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이→익'으 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그런데 翼자의 갑골문을 보면 새의 한쪽 날개깃만이 $^{rac{M}{2}}$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날개'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이다. 그러나 금문에서부터는 뜻과 발음을 전 달하기 위해 異자와 羽자가 결합한 형태의 翼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P	W By	科	翼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3(2)





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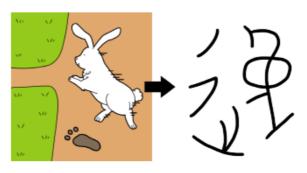
참을 인

忍자는 '참다'나 '잔인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忍자는 刃(칼날 인)자와 心(마음 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刃자는 刀(칼 도)자의 날 부분에 점을 찍은 것으로 '(칼이)날카롭다'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날카로운 칼날을 뜻하는 刃자에 心자를 결합한 忍자는 '칼날의 아픔을 견디 는 마음'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심장을 찌를 듯이 아픈 감정을 인내하고 견뎌야 한다는 것이 바로 忍자인 것이다.

H. C.	55	忍
금문	소전	해서

3(2)

333



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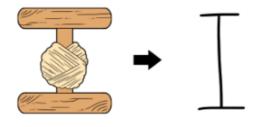
편안할 일 逸자는 '달아나다'나 '없어지다', '숨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逸자는 辶(쉬엄쉬엄 갈 착)자와 兎(토끼 토)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兎자는 토끼를 그린 것이다. 이렇게 토끼를 그린 兎자에 辶자가 결합한 逸자는 토끼가 달아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逸자의 본래 의미는 '달아나다'였다. 逸자는 후에 토끼가 달아나면 금방 숨어버린다는 의미에서 '숨다'나 '없어지다'라는 뜻이 파생되었다.

经	爺	逸
금문	소전	해서

상형문자 🛈

3(2)

334



壬

북방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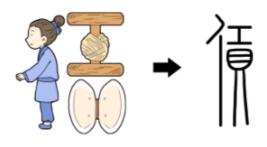
壬자는 '북방'이나 '천간'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壬자는 士(선비 사)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선비'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士자와는 기원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壬자의 기원에 대한 해석도 제각각이다. 일부에서는 실을 엮던 도구로 보기도 하고 또 다른 해석에서는 북쪽에 있는 별과 땅을 연결한 모습이라고도 한다. 壬자에 '북방'이라는 뜻이 있으니 그런 해석도 가능하리라 본다. 또 壬자를 工(장인 공)자와 같은 자였던 것으로 보기도 하

지만 당시의 \pm TN($\frac{1}{4}$)는 \pm TN와($\frac{1}{4}$) 달랐기 때문에 같은 글자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이런 논쟁이 무의미한 것은 지금의 \pm TN는 유래와는 상관없이 천간(天干)의 아홉 번째라는 뜻으로만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 때로는 다른 글자와 결합해 '사람'과 관계된 뜻을 전달하기도 한다.



3(2)

335



賃

품삯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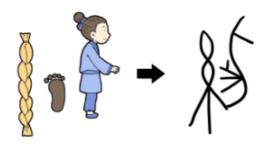
質자는 '품삯'이나 '품팔이', '세내다', '빌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賃자는 任(맡길 임)자와 貝(조개 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任자는 등에 무언가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을 그린 것으로 '맡기다'나 '(일에)능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품삯'이란 내가 남에게 일을 부탁하거나 일을 해준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한다. 그러니 '맡기다'라는 뜻의 任자와 貝자가 결합한 賃자는 '일을 맡긴 대가'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賃자는 고용주나 피고용주 모두가 사용할 수 있으므로 '세를 내다'나 '세를 내고 빌리다'라는 뜻을 함께 갖고 있다.

	順	賃
금문	소전	해서

형성문자①

3(2)

-3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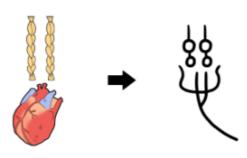


紫

자줏빛 자 紫자는 '자주빛'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紫자는 此(이 차)자와 糸(가는 실 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此자는 사람과 발을 함께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차→자'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고대에는 자연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이용해 염색했다. 염색의 대상은 당연히 실을 엮 어 만든 천이였다. 색깔과 관련된 한자 대부분에 糸자가 쓰인 것도 이 때문이다. 紫자도 그중 하나로 자줏빛으로 물들인 천을 뜻한다.

	<u>ሠ</u> ሹ	紫
금문	소전	해서

3(2) -337



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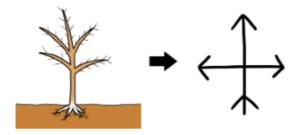
사랑 자

慈자는 '사랑하다'나 '자비'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慈자는 玆(이 자)자와 心(마음 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茲자는 실타래가 드리워진 모습을 그린 것으로 '무성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무성함을 뜻하는 茲자에 心자가 더해진 慈자는 '무성한 마음'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기서 무성한 마음이란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도 베푸는 사랑을 말한다. 그러니 慈자에 있는 '사랑하다'라는 뜻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닌 만인에게 베푸는 '인정'이나 '자비'를 뜻한다 할수 있다.

86	\$ 6	慈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3(2) -3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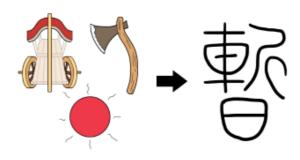


刺

찌를 자: | 찌를 착 刺자는 '찌르다'나 '찔러 죽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刺자는 朿(가시 자)자와 刀(칼 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朿자는 가시가 있는 나무를 그린 것으로 '찌르다'나 '가시'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본래는 '찌르다'라는 뜻은 朿자가 먼저 쓰였었다. 그러나 소전에서는 刀자가 더해진 刺자가 만들어지면서 '칼로 찔러 죽인다.'라는 의미를 더하게 되었다. 누군가를 해치게 되는 경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刺자에 '헐뜯다'나 '비난하다', '꾸짖다'라는 뜻이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여러 이유가 살인까지 저지르는 상황이라는 의미도 함께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2) -339



暫

잠깐 잠(:) 暫자는 '잠깐'이나 '(시간이)짧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暫자는 日(해 일)자와 斬(벨 참)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斬자는 車(수레 차)자와 斤(도끼 근)자가 결합한 것으로 '베다'라는 뜻이 있다. 사실 斬자는 고대 중국에 있었던 형벌을 뜻하던 글자이다. 斬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사지를 다섯 대의 수레에 나누어 묶어 찢어 죽이던 형벌을 말한다. 사극에 나오는 거열처사 (車裂處死)라고 하는 것이 이 형벌을 뜻했다. 이러한 처형방식은 고통스럽지만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기에 여기에 시간을 뜻하는 日자가 결합한 暫자는 처형시간이 매우 짧은 시간이 이뤄진다는 뜻하고 있다.



회의문자①

3(2)

340



潛

잠길 잠

潛자는 '잠기다'나 '가라앉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潛자는 水(물 수)자와 朁(일찍이 참)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潛자는 사람들이 크게 하품을 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潛자는 본래 '자맥질하다'를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그래서 하품하는 모습을 그린 簪자를 응용해 수영하며 숨을 내쉰다는 뜻을 표현했다. 다만 지금의 潛자는 자맥질을 하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보이지 않는다 하여 '감추다'나 '숨기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다.

	潛
소전	해서